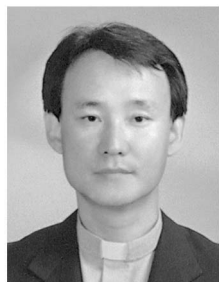


주일의 말씀

믿음·희망·사랑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박덕수 스테파노 신부
대해성당 주임



오늘은 성지주일로 교회의 일 년간 전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인 성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옛날 잿빛 가슴새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잿빛 가슴새 중에 영롱한 붉은빛 가슴을 가진 새가 나타나리라, 그때가 되면 어둡침침한 잿빛은 사라지고 모두 붉은색 가슴을 가진 새들이 되리라」 어느날 꼬마 새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웬 젊은이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며 언덕을 오르더니,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꼬마 새들 중 한 마리가 저 젊은이가 너무 고통스럽겠다고 생각한 끝에 쏜살같이 내려가 있는 힘을 다해 작은 주둥이로 그의 손에 박힌 못을 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젊은이 머리에 박힌 가시를 주둥이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가시를 다 뽑아내자, 가시를 뽑을 때마다 터져 나온 청년의 선혈로 잿빛 가슴은 영롱한 붉은빛 가슴새가 되어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

는 말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죽음 중에 십자가의 어리석은 죽음을 택하셨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진리와 사랑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믿음이든 진리가든 사랑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는 넘을수록 험하고 내는 건널수록 깊다는 말 씀처럼 오늘 성지주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난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동반자는 고통, 번민, 고뇌입니다. 고뇌와 번민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둡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악에서 옵니다. 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으므로 악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어둡고 파괴적인 악은 없애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끌어안음으로써만 해결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잘라냄보다 끌어안음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미숙하고 불완전한 모든 면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지혜이며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생명의 말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루카 23:46

이사 50,4-7 필리 2,6-11 루카 22,14-23,56

생명 문제와 4대강 살리기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로마8,22)

1960년대 이후 이 나라 정부는 단기간의 경제개발 효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겨냥하며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1973년에는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사실상 어머니 뱃속의 아기 생명에 대한 무차별적인 제거 수술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 가톨릭교회는 거의 해마다 이런 반생명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여 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아동이 급감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의 발전은 말할 나위도 없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면서 어둔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사람들 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어둠에 억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던 의료인들이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하며 많은 저항과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더 이상 죽음의 문화를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각오로 용기 있게 호소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반생명적인 문화가 무겁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참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장 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어머니 뱃속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1985. 6. 11, 84도, 33권 2집, 협497(500)) 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생명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고 파괴하는 행위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생명이 파괴되면 그 자연을 호흡하고 섭취하며 살아가는 인간 생명도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계 총회에 모인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 나라 전역의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보았지만,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하며 수많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욕심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회칙 ‘진리안의 사랑’에서 “환경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를 사용하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료 이상으로 소중한 창조주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에는 그것을 무분별하게 착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과 기준을 알려주는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48항)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 만 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며, 정부 당국자들과 국민 모두가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후손이 잘 되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 30, 15.19) 

2010년 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교회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을 성주간이라 부릅니다. 이 한 주간에 교회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代贖)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엄청난 사랑(파스카 신비)을 체험하며 묵상합니다.

주님수난성지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구원하소서!’)를 외치며 환호하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그 환호가 곧 배신으로 바뀌는 아픔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어쩌면 모두 ‘사랑의 배~~~~신자~여!!!’ 아닐까요?)

성주간(월요일-수요일): 특별한 예식은 없지만 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화요일에는 제자들의 배반을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온 유다의 배반을 묵상합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하지만 그 뒤에는 음모와 배신이 꿈틀거리는 시간이라 할 수 있죠. 마치 우리의 숨은 마음처럼...

파스카삼일(목요일-토요일): 성목요일 오전에는 모든 사제들이 주교좌성당에 모여 성유축성미사를 공동 집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제직을 세우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날을 사제들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날 저녁에 주님만찬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미사 중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

시며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을 재현하는 발씻김예식을 합니다. 미사 후에는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고 밤새워 성체조배를 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졸립지만 시간을 잘 지키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게 하세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날입니다. 긴 수난기를 읽고,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경배하는 예식을 합니다.

성토요일, 아름답고 거룩한 빛의 예식을 통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장엄하게 봉독되고 세례 갱신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고 장엄한 전례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 어찌 집에서 T.V나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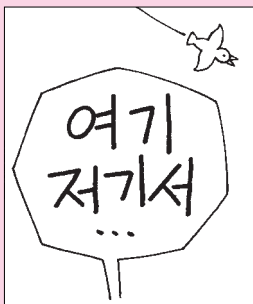
성주간과 파스카 삼일 전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영과 배신 그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죽음의 공포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미사 성제.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한아름 담겨있는 성주간 전례에 꼭 참석하셔서 행복한 부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교구 사목국

마무리도 잘...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입당성가

10 주를 찬미해

화답송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파견성가

118 골고타 언덕

영성의 향기

:: 깨달음

우리가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건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체험하였다고 하는데 이 체험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체험한다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어떤 사건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거나 이해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란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체험 때문에 그것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여 글로 표현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그 체험을 달리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험의 해석은 시대마다 역사마다 달랐고 우리에게 새로운 앎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 체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계로 부르시는 목소리에 대해 응답하면서 얻어지는 체험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체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기초자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쫓아 다닌다 하더라도 하느님 체험이 없다면 내면적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영적 체험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는데 황홀한 탈혼상태나 환영, 계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조건 < 정신



뽕벌(bumblebee)은 생물학적 조건으로는 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몸의 크기에 비해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뽕벌은 납니다. 조건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야 하기 때문에 납니다. 반면에 닭은 날지 못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 해봐도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닭은 조건으로는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먹이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조건보다 정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정신은 뽕벌인가요? 닭인가요? 

- 전병욱 도전정신 중에서 -

(2009년 5월 27일자 편지로 주교님께 나주 성모님을 믿으면 영성체를 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본당 어떤 자매님이 영성체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교구 사무처장의 답변입니다.)



자매님께

자매님께서 2009년 5월 27일자 서신을 통하여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가톨릭 신자들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자매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라 말씀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겨주신 이 권한으로 사도들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계시를 온전히 보관하고,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석하는 교도직을 수행하십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신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도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계시헌장 10항).

위에서 말씀드린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자매님께서서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가톨릭교회는 교회 시작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개인의 주관에 따르는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교회의 신앙임을 줄곧 가르쳐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가톨릭교회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믿고, 이로써 나에게 그 신앙을 전해주고, 키워 주고, 지탱해 준다. 어디에서나 먼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교회이며,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저는 믿나이다.’,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도록 인도된다. 우리가 세례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168)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교도권으로 2008년 1월 21일 광주대교구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나주 윤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광주대교구장 교령”을 통하여 교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주관하거나 그 행위들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은 행위 그 자체로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령”은 바로 교회의 교도권이





신자들에게 내리는 “번복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대구대교구에 속한 신자들도 앞의 교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주관하거나 그 행위에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 자동파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님께서 잘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교회의 교도권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교도권의 가르침을 거역한 이들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자매님은 지금 교회 교도권이 금지한 사항에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그 사실 자체로” 안타깝게도 교회 교도권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셨고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자매님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심으로 이미 프로테스탄트가 되신 것입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고해성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교회를 통하여 부여하는 그 어떤 하느님의 영적 혜택에도 참여하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체를 영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매님이 교회의 교도권이 무엇인지, 교도권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야 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하셨다면, 이제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008년 5월 8일자 공문으로 대구대교구 총대리 주교님께서 밝히신 바대로 다시는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그 어떤 일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으시고 파문제재에 관한 용서를 받으도록 하십시오. 그 외에는 교회가 자매님의 영적 유익을 위해 내릴 조치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식별과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교도권에 맡겨진 직무에 속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교도권에 순종하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이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2티모 4,3-4)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7)라 명하신 주님의 명에 순종하시며 불철주야 주님의 양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봉헌하시는 주교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당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 6월 4일

천주교대구대교구 사무처장 하 성 호 사도요한 신부 드림

★ 모임 · 행사 ★

제35회 대구대교구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 일시: 5.21(금) 09:00
- 장소: 대구가톨릭대 하양캠퍼스 테니스장
- 접수마감: 4.23(금) 17:00까지
- 문의: 교구평협 250-3057

폐제기도회

- 일시: 4.10(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 피정 ★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 젊은이 피정

- 일시: 매월 둘째 일요일 10:00
- 장소: 수원관구 인계동
- 문의: 010-2568-5231

★ 성소모임 ★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 일시: 매월 첫째 일요일 11:00~16:00
- 장소: 서울 돈암동 성골롬반 선교센터 2층
-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젊은 남성
- 문의: 양창우 신부 010-6818-3737

★ 교육 · 모집 ★

제2기 성지 안내봉사자 교육

- 일시: 4.18(일)~7.10(토), 수강료: 5만원
- 내용: 교회사(서양, 중국, 일본, 한국), 안내방법론, 실습
-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제대 꽃 봉사자를 위한

전례 꽃꽂이 강좌 2학기 수강생 모집

- 개강: 5.11(화), 접수: 3.28(일)~5.3(월)
- 문의: 대구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010-5501-4042/ 010-5156-8226

대안 성당 사순특강

- 일시: 3.29(월) 09:30
- 주제: 신앙 생활의 위기
- 강사: 김길수(사도요한) 교수
- 미사: 최홍길(레오) 신부
- 문의: 017-501-9713

관덕정 4월 영아성경공부반 모집

- 개강: 4.1(목) 10:00~12:00 (화, 목) 강의
- 과정: 사도행전(Acts) 및 민수기(Numbers)
- 문의: 254-0151/ 010-2578-5535, 월회비 2만원

본당사회복지학교(기초과정) 개강

- 교육기간: 4.5~26(매주 월) 13:00~17:00
- 장소: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교구청 교육원가동)
- 접수기간: 3.22(월)~31(수)/ 255-7221, 2
- 교육비: 3만원(교재비포함)
- 대상: 본당사회복지활동과 자원봉사에 관심있는분

대구Se. 제15차 레지오 마리아 학교

- 일시: 4.8~6.10 (매주 목) 10주간
- 오전 반(목): 10:00~12:00
- 오후 반(목): 19:30~21:30

· 장소: 가톨릭교육원 나동 4층 대회의실

- 문의: 256-3574/ 250-3170

영남대학교병원 제8회호스피스자원봉사자교육

- 일시: 4.21(수)~23(금), 참가비: 2만원
- 장소: 영남대병원 서관 3층 회의실
- 문의 및 신청: 620-4673

윤일공부방 (초등)전담 교사 모집

- 자격: 대학교 재학생 또는 주부
- 시간: 16:30~18:30(월~금), 문의: 552-4959
- ※ 4~5명의초등학생학업을전담지도하실분을찾습니다.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 일시: 4.19(월)~28(수) 9박10일
- 내용: 이집트, 이스라엘
- 주최: 아씨사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영성연구소
- 문의: 권루치아 수녀 010-7131-3097

가톨릭문화관 내 사무실 임대(1층 8평)

-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대덕성당 지휘자 모집

- 문의: 대덕성당 626-3138

성바오로 안나의 집 조리사 모집(군위군부계면)

- 문의: 054-382-1634(거주가능자)

★ 안내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 문의: 02-764-4741,3 (<http://www.성가정입양원.com>)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spc)상담심리센터개설

- 일시: 4.7(매주 수) 19:00~21:00, 8주간
- 에니어그램1단계교육(선착순: 15명)
- 문의: 659-3455, 6/ 010-3228-3330

2010 대구주보 알림게재 신청안내

-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로만 접수합니다.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기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성삼일 전례관계로 성모의 기사회, 푸른군대

미사가 4.10(토)변경되었습니다. 미비회, 민족 화해후원회 미사는 쉽니다.

3.1(월)부터 성모당에서 봉헌되는 교구 제단체

미사 시간이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원 의 료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용구 판매

혈압계, 혈당계, 체력계, 안마기, 뜸, 부항
변 상 범(도마리코) 김인 숙(아니타)

경대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카리타스 요양 센터
Caritas LONG TERM CARE CENTER

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1577-9913 / 636-5567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요양보호사교육원
053)255-7222·교구청(성모당)내 교육원 가동3층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 연 세 안 과

iFS아이리식, 백내장, 노인수술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상담전화 626-8881~5

척추·관절염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윤 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오월의 정원
wedding culture

세상에 하나뿐인 로맨틱드라마

결혼 · 돌 · 회갑 · 기업행사

중구 문화동 대구시티센터(구. 밀리오레)

예약문의 664-7000

www.maygarden.kr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레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이채, 선어, 정육

*신선, 가공식품, 공산품, 생필품

*생활, 패션잡화, 수입주방,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화관맞은편)

대표이사 장영 일(그리산도)신부

결 혼 정 보 회 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만

박복순(오스트리아)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www.kusb.co.kr)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